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 로고 도용 의혹

공모전 출품자 “입상 못한 내 작품 베꼈다” 주장

디자인업체 “생각 비슷할 뿐 표절 아니다” 반박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공식 로고 디자인이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휩싸였다.

11일 A(여·29·취업준비생)씨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공식 로고는 공모주최 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가 진행한 공모전 로고 부문에 출품한 내 작품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작품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진행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공모전’ 로고 부문에 출품했으나, 입상하지 못했다. 이 디자인비엔날레 공식 로고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국내 유명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의뢰해 제작한 것이다.

A씨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인 ‘거시기, 머시기’ 글자가 서로 마주보도록 디자인된 내 작품의 뚜렷한 특징과 ‘것이기, 멋이기’로도 읽을 수 있도록 배열된 것이 비슷하고, ‘시’자 두 개의 ‘시’ 사람의 눈 모양처럼 ‘시’로 디자인된 것도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9일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로고를 만든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공모전을 진행한 광주디자인센터에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공모전 응모작



[Gesigi Mesigi]

Anything, Something
것이기 멋이기

공식 로고

“명백한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고를 디자인한 회사 대표는 “디자인이 유사한 것은 디자인에서 수천가지의 아이디어를 내고, 스케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사성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번 ‘거시기, 머시기’도 한글 6글자를 가지고 가로,

세로 등 각각으로 조합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비슷했을 뿐 표절이나 도용의혹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도 “표절이나 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폴리Ⅱ 작품 중 하나인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의 ‘탐구자의 전철’이 다음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탐구자의 전철은 지하철에 시각예술을 입힌 작품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광주 ‘폴리 전철’ 달린다

‘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든 광주 폴리Ⅱ 작품 미리 만나세요.’

광주 도시 풍경을 바꾸게 될 광주 폴리 두 번째 프로젝트 작품 중 하나인 ‘탐구자의 전철’이 다음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다른 작품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작인 작품으로 탑승객들은 LCD 모니터를 통해 짧은 영상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전체 4대 차량 중 우선 1대를 시범운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탐구자의 전철과 함께 광주 폴리Ⅱ

작적인 운영을 위해 틈새호텔 홈페이지 (www.inbetweenhotel.com)에서 예약을 받을 예정이며, 기억의 상자 중 박스 148개는 시민들의 추억과 희망이 깃든 물건을 전시하기 위해 광주YMCA 공고를 진행중에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다음달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끝나는 11월 광주시 동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 골목에 설치된 투표 작품에서 램 콜라스 등 참여작가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폴리Ⅱ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전 독서실은 ‘교육문화공동체 결’, 포장마차는 ‘(사)푸른길’, 투표는 ‘광주청소년문화의 집’, 탐구자의 전철은 ‘광주도시철도공사’, 틈새호텔은 ‘광주라마다호텔’ 등이 운영파트너로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처음에는 늦어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프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광주 폴리 1차 프로젝트에서 시간에 쫓겨 드러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가, 국내 설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탐구자의 전철’ 내주 시범운영… ‘폴리Ⅱ’ 조성 잔걸음

11월 램 콜라스 등 참여작가 10여명 참여 개막식 진행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되는 ‘광주 폴리Ⅱ’(총감독 니콜라우스 히르쉬) 중 인도 출신 예술가 그룹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가 만든 ‘탐구자의 전철’ 1대가 다음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 작품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전체 23편성 차량 가운데 4편성 차량에 시각예술을 입힌 작품이다. 검은색의 선과 빛으로 지하철 내부를 장식, 서민들의 삶과 가까운 대중교통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컨셉이다.

지하철 내부를 오가는 강한 선들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가 인상

리Ⅱ 다른 7개 작품도 서서히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현재 공정물은 광주전 독서실(데이비드 아자에·타이에 셀라시 작) 70%, 투표(램 콜라스·잉고 니어만) 95%, 유네스코 화장실(슈퍼플레이스) 70%, 혁명의 교차로(에알 와이즈만) 95% 등이다.

기억의 상자(고석홍·김미희)와 업그레이트된 틈새호텔(서도호)은 이미 완성됐으며,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감독이었던 아이 웨이웨이의 포장마차도 중국에서 제작 완료돼 이달 말 광주로 들어올 예정이다.

업그레이트된 ‘틈새호텔’은 실

전국 시도지사協, 지방재정 해결책 정부에 촉구

민중도 지방소비세율·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요구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여야 합의대로 20%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실시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 재정 자율성은 악화돼 자체 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

지분야 의무 지출 규모는 2007년 전체 예산의 15.4%에서 올해 22.3%로 늘어나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배로 늘었다.

이에 협의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에 지방 정부가 대비하려면 지방소비세율 5% 포인트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여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해야 하며 지방소비세

의 독립세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여야 합의대로 20%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과장 전담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문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이 그렇게 흥정할 문제냐”면서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회의에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

시 공약이었다. 서울시와 정부가 당이 기 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다른 시·도는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여야 입장이 충돌하면서 10개월째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12일 발표하기로 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정조정방안’을 무기 연기했다. 무상보육 갈등 등 중앙과 지방의 의견 조정 난항 때문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방사능 정밀장비 구입기로

전문인력도 채용

광주시와 전남도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없다는 지적(광주일보 11일자 1·3면)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장비가 없으면 제대로 된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없어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 등을 전혀 할 수 없게 돼 이들 지자체가 전문팀을 꾸리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식품 방사능 정밀 분석 장비인 감마핵분석기 1대를 구입하고,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RI면허(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일반면허) 취득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감마핵분석기 관련 예산 배정과 RI면허 소지자를 채용해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당 가격이 2억원에 이르는 장비는 식품이나 물, 토양을 오염시킨 방사능의 종류와 양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 부산시만이 감마핵분석기와 전문 인력을 배치해 상시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강운대 광주시장은 11일 서구 양동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생선을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로 직접 측정하듯 “이곳에서 판매되는 생선은 안전하다”면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오광록기자 redplane@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0130-광-20%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열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충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 |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 | 궁동본점 | 팀장 010-3603-798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니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섭취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s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